

2016년 12월 7일, 구좌읍 종달리 김보배씨 댁, 송정희 조사.  
김보배(여, 1939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**[제보자]** 어떤 사람이 물을 타네 물을 타네 어디 과거를 보러 가는데, 물을 탕 과거를 보러 가는데 이제 가다가 보니깐, 해가 저물어분 거라. 저물어부난 이젠 집을 이제 영 보난 막살이 하나가 잇인 거라.

그 집이 이젠 들어강 보나네 이제 여자가 하나 잇어. 여자가 하나 잇이나네 이젠 집을 흐쓸 방을 빌리렌 허난, 그 여자 방을 빌려준 생이라. 빌려주언 헌디 물이 그 바로 물이 창 발라 멘 생이라게, 메나네 이젠 그 오꼴허게 나오당 보난 남쪽을 오꼴 발로 찬 물이 발로 찬 죽여분 거라. 물 발을 찬 죽여부난 이젠 그 주연을 이제 그 해명을 벗어나갈 수가 잇는 거라게.

어떻허민 이제 이 사람을 뭐혈 건고 헨 나갈 수가 잇이난에 7만히 그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과게. 혼짝 손엔 7세를 심지곡 혼짝 손엔 물총을 심져네 물뚫고냥에 강 그 사람을 눕진 생이라게. 눕져네 그 해명 벗어나젠 험디다게.

- 핵심어 : 물, 물총, 7세, 과거, 막살이